

정부, 5·9 종과유예 종료...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세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3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종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또 연장 부당한 믿음 갖게 한 정부 책임 있어"

구윤철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이재명 "아마는 없다"

재경부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종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처리 양도한 거래만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잔금과 등기 일정을 고려해 일부 말미를 주기로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에서는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종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종과를 받지 않는다.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

련하겠다"며 "이번이 아마 종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종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발언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며 "아마는 절대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이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연장하겠거니' 하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5월 9일까지 종과세 면제, 이 기준은 지키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해보라"고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이날 재경부가 제안한 3~6개월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간을 미세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다주택자 관련 규정을 법률로 옮겨야 한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적에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 시행령으로 하고 (이후) 아예 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심경영 기자

한병도 원내대표 "내란 완전종식·사법개혁 완수 수사·기소 완전 분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농단 실제 김건희 종합특검서 철저 수사"

"전두환 찬양 극우인사 입당 국힘 '내란범 갤러리'인가...정교유착 단절"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 깔겠다"...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

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해선 "주가 조작과 '명태군 무상 여론조사' 등의 거대 범죄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제, 'V 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 2차 종합특검에서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밝힌 뒤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

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3대 사법개혁이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외공직을 말한다.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투어디스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

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에는 '후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또한 '기본사회'는 이런 기술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이므로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누는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복 기자

국힘 원외-친한계 '반말 의총'

장외 설전...한동훈 제명 여진 계속

장동혁, 당 내홍에 침묵하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준비

국민의힘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가 3일 이른바 '반말 의원총회' 논란을 두고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파국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진영 간 대립이 감정적인 수준까지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 당협위원장협의회 소속 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한계 정성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의총에서 정 의원이 조광한 최고위원에게 보인 안하무인의 무례한 작태를 우리 원내 당협위원장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한다"며 "의원 배지를 '현상의 계급장'으로 착각하는 천박한 특권의식을 버리시라"고 성토했다. 규탄 성명에는 78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원외인 조 최고위원에게 "의원이 아닌데 의총에 참석해도 되느냐"는 취지로

서 고성과 반말 등 거친 언사가 오간 바 있다. 이후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야 인마, 너 나와'라는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조 최고위원은 "너 좀 나와봐"라고만 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과 조 최고위원의 '반말 충돌'은 본질적으로는 한 전 대표 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 등 주요 고비마다 부딪혔던 친한계와 당권파 간 묵은 갈등이 수면으로 올라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지명한 인사다. 국민의힘이 내용으로 '심리적 분당(分黨)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 중진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혼란을 키웠다. 장 대표는 당 안팎의 난맥상이 이어지는 동안 별다른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 무대 준비에 매진했다. 진정화 기자

소통과 공능, 신뢰받는 세종 특별자치시의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세종시의의회는 승풍파랑의 기세로 시민을 위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 바람을 타고 물결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

운영 미디어 채널

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의**
SEJONG CITY COUNCIL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